

늑대의 리더 뽑기

몽골의 대초원을 힘차게 달려가는 영화 속 늑대의 한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 어디를 그렇듯 뛰어가는지 잠시 생각에 잠기는 사이, 어느새 언덕을 훌쩍 넘어 초록빛 초원 너머로 감쪽같이 사귀를 감춰버렸다.

늑대는 주로 두 귀로 사냥을 한다는 말이 있다. 감각기관 가운데 가장 잘 발달한 곳이 귀라는 얘기다. 실제로 늑대는 2,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멧돼지나 양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즐겨먹는 동물의 사체 역시 후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사체에 때 지어 모인 까마귀들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찾아간다. 더구나 사슴의 인종인 엘크와 같은 큰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 하룻밤에 70킬로미터나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힘과 지구력마저 지녔다. 하지만 먹잇감이 줄어들어는 한겨울에는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한다. 때문에 집을 떠나 점점 더 멀리 이동해 가는 데, 한겨울에는 무리 수백 킬로미터나 이동할 때도 있다. 이런 늑대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공동체 생활을 한다. 흔히 12~15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종족을 지켜나간다.

따라서, 무리를 이끄는 리더에 따라 곧 그 무리의 운명이 건정되어 지기도 한다. 때로는 한겨울의 굶주림으로, 또한 때로는 다른 무리의 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지 못한 새 빨빨이 흩어지고야 마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만큼 늑대의 무리는 자신들의 리더를 매우 신중히 뽑는다. 그저 단순히 척박한 땅에서 굶주림을 모면하고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단연 사나운 늑대를

리더로 뽑을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다. 사나운 늑대에게는 집단으로 대응하여 피를 흘리는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무리 밖으로 추출하고, 대신 보다 성숙한 늑대를 자신들의 리더로 선택해낸다. 자신들의 운명을 보다 성숙한 리더에게 맡기는 것이다.



오재원
기획전략본부장
02-82009-4575

최근 눈에 띄는 외신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전 세계 기업들이 리더십 위기에 처해있으며, 미래 비즈니스에 필요한 차세대 리더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로이터통신의 외신이였다.

기업경영에서 리더는 곧 커다란 이슈가 된다. 더구나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리더의 모습도 다양화해져,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리더에 관한 정의만도 무려 130여 개나 헤아린다. 이웃 나라 일본의 기업에서 리더가 되려면 도요타는 '인품'이, 닛산은 '여성 이해'가, 소니는 '균형 감각'이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선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리더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늑대의 리더 뽑기는 이런 우리들에게 생각게 하는 점이 적지 않은 것 같다.

| 기술표준 2008.8